

21세기는 여성의 만들어야 한다.

“여성의 역할이 있는 분야를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남성이 보는 점보다 훨씬 현실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박진준 차장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여성부 기획조정관

21

세기는 여성의 주류세력으로 등장 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이 세기 전 진단 했는데 요사이 우리사회에서도 여성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사범 연수생 수석은 몇 년째 여성이 차지하고 금녀의 영역이 서서히 무너지며 디자인 등 여성의 감성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남성을 뛰어 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 그러나 유독 지금도 남성과 비교시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수학 과학을 비롯한 이공계 분야로 과학영재의 여성 비율이 해마다 줄고 있다는 인적자원부의 발표는 21세기 여성의 주력으로 성장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 한다. 변호사의사는 우리사회에서 인기 있는 업종이나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점에 있어서는 거의 기여를 못한다. 국가의 부의 창출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석권해야 하는 현실에 있어서 이공계 기피현상과 우수한 여성 인력이 없다면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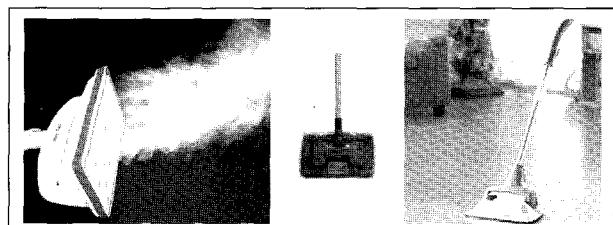
그동안 여성은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했다. 치맛바람으로 대변되는 교육에 대한 그동안의 역할은 공교육 불신과 능력

없는 사람이 학교성적이 좋은 교육 병폐의 온상이 되었다. 복부인으로 대변되는 투기 열풍의 조성은 국가 전체의 지가와 부동산 가격을 올려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지게 만드는 역작용만 하였다. 그 동안의 이러한 역할은 내부에너지를 건전한 방향으로 표출하지 못하게 만든 사회구조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여성 스스로 노력하지 못한 것 또한 문제일 것이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와 문화가 꽂피는 사회로 성의 영역구분이 없는 사회로의 진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가속화 될 것이다. 여기에 맞추어 여성인력이 자연과학을 비롯한 기술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으로 여성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해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서 여성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면 남성이 보는 점보다 훨씬 현실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동안 여성의 여성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발명들을 보면서 많은 여성 발명가가 나오길 빌어보겠다. 여성과 남성은 생리작용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난다. 여성에게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고통은 여성만이 안다. 이러한 고통의 해결은 일본의 사카이 다카코여사가 흡수성이 강한 페프를 이용한 생리대를 발명 세계 모든 여성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다.

우리나라 여성의 발명을 하여 세계화를 한 사례들은 거의 없다. 그런데 요사이 하나 둘 여성 발명가들이 발상에서 사업화까지 성공하여 세계화가 가능한 사례들이 나오는 것 같다. 가전 제품들은 세계 어디나 여성들이 주고객이고 사용한다. 집안 청소는 남녀 평등 국가에서도 여성의 몫인 나라가 많다. 진공 청소기로 먼지를 뺏아들인다 하여도 물결레질은 해야 한다. 방바닥이 온돌이건 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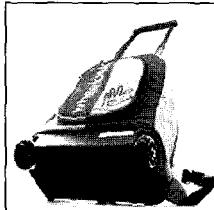
바닥이든 문화가 약간 다르다 하여도 물결레질은 세계적인 일거리다. 물결레질의 고통을 가장 몸소 느끼는 사람은 여자다. 이러한 여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기존의 물결레 청소보다 훨씬 깨끗하고 쉽게 하는 방법인 스팀 청소기를 우리나라 여성이 발명을 하고 사업화를 하여 1년 매출이 수백억원이 넘고 세계적인 가전 회사들이 특히 사용권을 달라며 손을 벌리고 있는 발명이 있다. 아이디어는 100도 가까운 스팀이 몸체에서 나오면서 바닥을 닦는 스팀 걸레 청소기다.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집안청소의 어려움을 몸소 느끼던 중 쉽게 청소하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다 스팀이 나오는 청소기를 발상하여 스팀 기술을 연구 청소기에 스팀 발생장치를 장착하여 청소를 할 때 100도의 스팀이 나와서 먼지 뿐만 아니라 진드기 등 집안의 조그만 벌레들도 죽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대발명을 하였다.



〈스팀이 나오는 모습〉〈기존걸레 청소기〉〈스팀 걸레 청소기〉

아이디어 발상은 스팀이 나오는 기존기술과 기존 걸레 청소기를 결합 완성을 하였다. 여기에 진공흡수 장치까지 결합하면 더욱 큰 발명이 될 것이다. 이렇듯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남성이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좋은 발상을 할 수 있다.

다음의 사진은 바퀴가 있는 책가방과 아기용품을 넣는 여행용 가방이다. 등에 질 수도 있고 바퀴



〈바퀴가 있는 책가방〉



〈아기 용구 여행가방〉

를 이용해 끌 수도 있는 어린이용 책가방이다. 어린 자녀의 책가방은 여성들이 날마다 체크하고 준비하는 품목이다. 무거운 책가방을 줄이는 방법은 많이 있을 수 있다.

바퀴를 달아 가볍게 끌 수 있는 책가방은 기존 여행 가방의 원리를 이용하면 쉽게 발명할 수 있다. 유아를 기르는 둘은 사회적으로 서서히 변하고는 있지만 여성의 역할이 크다. 어린 아이 용품은 여행을 하려면 절반 이상의 짐이 된다. 유아를 위한 여행용 가방은 기존 가방을 약간만 변경하면 된다.

앞에서 보여준 사례들은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나간 발명들이다. 여성이 아니면 경험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집안에서 전업주부를 하던 사회활동을 하던 여성의 역할은 있다. 그리고 여성이 보는 시각과 남성이 보는 시각은 다른으로 같은 문제도 다르게 풀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고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한 현 시대에서는 여성만을 공략하는 마케팅이 성공하고 있다.

휴대폰도 여성의 생리 리듬을 체크해주는 기능을 추가하면 여성전용 휴대폰이 된다.

21 세기는 여성이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할 것 이고 해야 한다.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해야 한다. 과일만을 따먹을 것이 아니라 과일나무를 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구성원의 절반인 여성의 변화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탄력을 가지고 변화 할 수 없다. 그동안 여자라는 나약한 이미지나,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하나만의 안일을 추구하는 경향은 우리사회가 개인주의로 물들어 개인의 목소리는 강하나 조직은 약한 사회현상을 만들어 왔다.

이라크에서 죽은 김선일씨의 문제로 연일 매스컴은 시끄러웠다. 이웃 일본은 같은 사건을 쉽게 풀어나갔으나 우리는 싸늘한 죽음으로 해결했다. 국가적 대응이 총체적으로 잘못을 가져와 그동안 참여정부의 이미지에 멎칠을 했다. 이러한 현실은 현정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그동안의 의식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전체를 보지 않고 개인의 안일만 생각하는 여성화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현상이 만들어낸 현실이다. 앞으로 10년후 20년후 우리민족이 세계속에서 어떠한 공동체로 존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지금 이러한 상태라면 존재가 매우 미약하거나 없을 수 있다. 발명은 개인의 편리함이나 부귀영화 등 개인적인 측면도 없지않지만 남을 위하고 여러 사람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생각이 없이는 발상하기 어렵고 완성까지의 고통을 감내하기 어렵다.

그동안의 여성적인 사고는 발명을 하겠다는 발상과는 거리감이 있다. 21세기는 분명 여성의 득세를 하는 세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여성적인 이미지에서 탈출보다 크고 강한 이미지를 합성한 21세기 여성 이미지를 만들어 세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근본이 기술개발을 통한 발명특허라는 기술 정보화시대의 맥을 알고 많은 여성의 끌고 가지 않고는 21세기 우리민족 앞날은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많은 발명가와 이공계 영재가 나와야 할 것이다.